2022년 북한경제 동향 및 2023년 전망: 외화 수급과 외화보유액을 중심으로

장형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hzang@hanyang.ac.kr

대부분의 저소득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경제동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외화 수급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상당수의 개발도상국은 그들의 국제수지(외화 수급)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최소한 외화보유액은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외부에서 북한의 외화보유액을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일정 시점의 북한의 외화보유액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외화 수급을 매년 추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북한의 외화 수급과 외화보유액 추정에 관한 연구로는 장형수(2009; 2013; 2021), 장형수·김석진(2019), Zang(2020) 등이 있다. 이들 연구의 주요 결론은 북한의 외화 사정이 항상 '매우 어렵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제법 괴리가 있다. 첫째, 북한은 최소한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추세적으로 외화를 축적해 왔다. 둘째, 북한의 외화 축적 과정에서 불법적인 외화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획기적으로 강화되어 북한의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이 급감하게 된 2017년 이후 북한의 대응을 통해 상당 부분 확인되었다.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획기적으로 강화된 대북제재로 2017년부터 북한의 수출은 그야말로 급감한다. 2019년의 북한 수출은 2016년의 1/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외화수입이 20억달러 넘게 급락한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북한은 수입을 크게 줄이지 않았다. 2016년 37억달러에서 2019년에도 30억달러 수준을 유지한다. 이에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는 2016년 9억달러에서 2019년에는 27억달러로 급증한다. 북한의 전체 외화수급도 2016년 1억달러 적자에서 2019년에는 12억달러 적자로 폭증한다. 북한은 2017~19년 3년간 무려 70억달러를 넘는 천문학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메꾸려고 그동안 자제해 왔던 불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하였다. 2017년 이전에는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수입이 무역적자의 5% 이상을 메꾸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나, 2018~19년 기간에는 무역적자의 25% 이상, 그리고 2020년에는 북한 무역적자의 47%가 불법 외화수입으로 충당되었다. 그러나 불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19년 3년간 북한의 최종적인 외화 수급 적자는 30억달러에 달하였다. 이는 북한 역사상 초유의 대규모 외화 수급 적자이다.

〈표 1〉 대북제재가 대폭 강화된 이후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2016~20년)

(단위: 백만달러)

	2016	2017	2018	2019	2020
상품 수출	2,821	1,772	243	278	89
상품 수입	3,726	3,778	2,601	2,967	774
무역수지(대외)	-905	-2,006	-2,358	-2,689	-684
거래성수지(남한)	0	0	0	0	0
서비스수지	206	223	181	203	55
소득수지	263	245	232	165	59
경상이전수지	79	75	127	117	33
자본수지	194	215	305	286	219
무기수지/불법거래	52	425	597	711	322
외화수지(수급)	-111	-825	-916	-1,206	3
외화수급 누적액[1)]	3,167	2,342	1,426	219	222

주: 1) 1990년 말을 시작점으로 삼아서 각 연도의 외화 수지(수급)를 누적시킨 것임. 예를 들어 2016년의 외화 수급 누적액은 1990년 말과 비교하여 2016년 말에 외화가 31.67억달러만큼 더 있었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장형수(2021).

이처럼 2017~19년 3년간 북한의 외화 수급 양상은 2017년 이전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이는 북한 당국이 획기적으로 강화된 대북제재로 급감하는 수출을 보고도 수입을 그에 맞춰 줄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토론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다만,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로 인해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북한은 2017년 이전에 이미 상당한 규모의 외화를 축적해 놓았다'는 것이다.

2020년에 접어들면서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발생하자마자 북한은 발 빠르게 국경을 봉쇄하고 인적, 물적 교류를 끊어 버렸다. 왜 이렇게 북한이 재빠르게 움직였나에 대해서는 약간의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2020년 무역적자는 전년보다 20억달러나 줄어들었고 그 해 최종적인 외화 수급은 거의 균형에 도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로 2017~19년 3년간의

평균 외화 수급 적자액 만큼인 2020년도 외화보유액 감소분 10억달러를 아끼게 된 것이다. 장형수・김석진(2019)과 장형수(2021)는 기존 연구들의 1992~2020년 외화 수급 누적액과 1991년 말 외화보유액 가정을 이용하여 2020년 말 북한의 외화보유액을 최소 17억달러에서 최대 50억달러, 중간치는 약 34억달러로 추정하였다.

〈표 2〉 북한의 외화보유액 추정치

(단위: 백만달러)

	외화보유액 최소치[1)]	중간치	외화보유액 최대치[2)]	외화수급 누적액[3)]	KDI 수정통계 추가액	1990년 말 외화보유액 범위
2011년 말	4,019	5,669	7,319	2,519	0~2,300	1,500~2,500
2012년 말	4,416	6,066	7,716	2,916	0~2,300	1,500~2,500
2013년 말	4,817	6,467	8,117	3,317	0~2,300	1,500~2,500
2014년 말	4,703	6,354	8,003	3,203	0~2,300	1,500~2,500
2015년 말	4,778	6,428	8,078	3,278	0~2,300	1,500~2,500
2016년 말	4,667	6,317	7,967	3,167	0~2,300	1,500~2,500
2017년 말	3,842	5,492	7,142	2,342	0~2,300	1,500~2,500
2018년 말	2,926	4,576	6,226	1,426	0~2,300	1,500~2,500
2019년 말	1,719	3,369	5,019	219	0~2,300	1,500~2,500
2020년 말	1,722	3,372	5,022	222	0~2,300	1,500~2,500

주: 1) 북한의 외화보유액 최소치 = 외화 수급 누적액 + 1990년 말 외화보유액 최소치
2) 북한의 외화보유액 최대치 = 외화 수급 누적액 + KDI 수정통계 추가액 최대치 + 1990년 말 외화보유액 최대치.
3) 1990년 말을 시작점으로 삼아서 각 연도의 외화 수지(수급)를 누적시킨 것임.
자료: 장형수(2021).

향후 북한이 대북제재를 얼마나 '우아하게'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한 가장 귀중한 정보는 북한의 2021년과 2022년 외화 수급과 외화보유액 추정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2022년 12월 중순 현재 그래도 2021년도 외화 수급과 외화보유액 추정치는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제시할 수 있지만, 2022년 추정치와 2023년도 전망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렇지만 북한경제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최근의 북한 외화 수급과 외화보유액을 큰 그림에서 추측해 보는 것은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먼저 2021년에 강화된 국경봉쇄로 인해 발생한 북한의 무역적자는 5.49억달러로 2020년보다 줄어들었으며, 특히 중국으로부터 지원받는 원유를 제외한 무역적자는 1.86억달러로 크게 줄어들었다.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 수입원에 대한 유엔안보리 전문가패널 보고서(UNSC 2022a; 2022b)의 내용을 활용하고 기타 일상적인 북한의 외화수입원이 전년도와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북한의 2021년 외화 수급은 '최소' 2~3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불법수입 추정 결과에 따라 북한의 2021년 실제 흑자 규모는 이보다 상당히 많을 수도 있다.

한편 2022년 10월까지 중국 해관에 기록된 원유 수입을 제외한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는 5.5억달러로 2021년보다 확대되었다. 이는 2년이나 지속된 국경봉쇄를 올해 들어오면서 다소 완화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무역적자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대부분 초래되고 기타 국가로부터는 흑자 내지 균형인 것을 감안하면, 2022년 북한의 대외무역 적자는 전년보다 늘어난 5~6억달러로 추측된다. 2022년 북한의 최종적인 외화 수급은 북한의 사이버범죄와 석탄과 어업권 등의 불법매매에서 얻는 외화 수입의 규모에 달려 있다. 최근 북한의 사이버범죄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올해 암호화폐의 가격 하락으로 북한이 확보한 외화의 규모가 실제로 전년보다 늘어났는지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서는 2022년 북한의 외화 수급을 소폭의 적자~균형으로 보기로 한다. 따라서 2021년과 2022년의 북한 외화 수급에 대한 '매우 잠정적인 추측' 결과, 2022년 말 북한의 외화보유액은 2020년 말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거나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북한의 외화 수급 전망은 우선 3년 동안 억제되었던 수입 수요를 북한 당국이 얼마나 충족시킬 것인지, 전통적인 외화 수입원과 불법행위로부터의 외화 수입이 얼마나 될 것인지 등에 달려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변화에 따른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정도가 북한의 대중 경제교류의 범위와 규모를 좌우할 것이다. 이처럼 너무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더 이상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추리 소설을 쓰는 것과 거의 같을 것이다.

참고문헌

장형수, 「북한의 2000년대 외화수급 추정」, 『비교경제연구』, 제16권 제2호, 2009, pp.1~48.

_____, 「북한의 외화수급 추정과 분석: 1991~2012년」, 『통일정책연구』, 제22권 제2호, 통일연구원, 2013, pp.165~190.

_____,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2016~20년 북한 외화수급에 미친 영향」, 이석 외, 『대북제재의 영향력과 북한의 경제적 미래』,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01, 2021년 12월, 180-205.

장형수·김석진, 「북한의 외화수급 및 외화보유액 추정과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시사점」, 『현대북한연구』, 제22권 제1호, 2019년 4월, pp.8~43.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874(2009)," S/2022/668, 2022a.

_____,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874 (2009)," S/2022/132, 2022b.

Zang, Hyoungsoo, "What the Estimates of the Balance of Foreign Exchange of North Koreans Would Tell Us," KDI Working Paper,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July 2020.